

# 『周易』에서 文의 의미 분석을 통한 인문정신 고찰

김아랑\*

## 목 차

1. 서론
2. 『周易』의 인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周易』에서 文의 의미
4. 『周易』의 인문정신
5.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周易』 전체에서 文의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문의 본의와 그 철학적 진면모를 검토함으로써 『周易』에 담겨있는 인문정신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동양에서 인문은 『周易』 賁卦 『象傳』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논란 중인 『象傳』 성립시기의 스펙트럼을 전국시대에서 전한시대까지 넓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문이라는 말은 천문과 함께 『周易』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周易』에서 유래한 인문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文史哲 통합의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로만 볼 수 없는 그 나름의 독특한 철학이 담겨있다. 게다가 동서양의 문화와 역사가 다른 만큼 두 용어의 의미도 분명 완전히 합치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周易』은 그 자체로 하늘에 대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성과 인문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성을 배제한 인문이란 분명 『周易』의 인문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교의 연속선상에서 천지의 도와 인간 문명적 덕성의 분명한 인식을 통해 성립된 『周易』의 인문정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周易』의 인문정신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과정 수료

인문이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周易』 賁卦 『彖傳』 외에도 『周易』 전체에서 산발적이지만 각기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文의 의미를 통해 인문의 함의를 고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주제어 : 주역(周易), 문(文), 덕(德), 인문(人文), 문명(文明)

## 1. 서론

본 논문은 『周易』에서 등장하는 ‘文’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人文’의 원의를 확인함으로써 『周易』 인문정신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동양에서 인문은 『周易』 賁卦 『彖傳』<sup>1)</sup>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여전히 논란 중인 『彖傳』 성립시기의 스펙트럼을 전국시대에서 전한시대까지 넓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문이라는 말은 천문과 함께 『周易』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周易』은 신비로운 점서로서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때문인지 인문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周易』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문은 15~16세기 서양 사회문화에서 형성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에서 유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周易』에서 유래한 인문의 의미는 文史哲

1) 『周易』, 賁卦, 『彖傳』: 賁, 亨, 柔來而文剛, 故亨, 分剛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 (剛柔交錯)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王弼, 郭京, 孔穎達, 朱熹 등의 학자들은 ‘天文也’ 앞에 ‘剛柔交錯’의 구절이 빠져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十三經注疏』에서는 본문에 ‘剛柔交錯’을 삽입하였다. 상하 문맥 상 이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보이며 文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이 구절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2) 백중현, 「인문학의 이념과 한국인문학의 과제」, 『인문논총』 제7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65면.

통합의 스튜디오 후마니타티스로만 볼 수 없는 그 나름의 독특한 철학이 담겨있다. 게다가 동서양의 문화와 역사가 다른 만큼 두 용어의 의미도 분명 완전히 합치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周易』의 인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周易』 전체에서 文의 의미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문의 본의와 그 철학적 진면모를 검토함으로써 『周易』에 담겨있는 인문정신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 2. 『周易』의 인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본론에 앞서 『周易』의 인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周易』 인문 연구의 동향은 크게 ‘동서양 인문개념 비교를 통한 인문이해’, ‘종교성 극복을 통한 인문이해’, ‘성인정신을 통한 인문이해’, ‘예악·예술적 인문이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서양 인문개념 비교를 통한 인문이해는 대표적으로 현대 유가 철학자인 施炎平의 연구가 있다. 그는 현재 유가 인문주의 연구의 취약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유가 인문주의에 대한 탐구는 대체로 서구(특히 르네상스로부터의 근대)인문주의와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거나 서구 인문주의자들의 말과 표현방식들로 나타내고 있음”<sup>3)</sup>으로 들고 있다. 사실 施炎平이 지적하고 있는 ‘동서양 인문개념 구별의 필요성’은 徐復觀에 의해 먼저 제기된 바 있다. 徐復觀은 “동양의 인문정신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서양의 인문주의와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비

3) 施炎平은 유가 역시 평등한 인격, 독립적 개체 등의 관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가 인문주의와 서구 인문주의의 시대적 위치를 뒤바꿀 뿐만 아니라 유가 인문주의의 정신적 특징에 대한 오해와 민족적 특색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施炎平, 『『周易』和儒家人文哲學：從差異比較的視角作重新詮釋的嘗試』, 『周易研究』05期, 2004, p.58.)

슷한 부분이 적어서 가볍게 비교하거나 부연할 수 없고, 동양의 인문정신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배태기 특히 신권 정신의 해방을 거치며 출현하였다.”<sup>4)</sup>고 하였다. 즉 동서양 인문의 내용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동양의 인문이해가 종교성 극복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성 극복을 통한 인문이해는 張立文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인문정신은 사람의 가치를 긍정하고 상승시킴과 동시에 천지의 神性を 부정하고 자연성을 긍정한다.”<sup>5)</sup>라고 하면서 종교성을 부정하는 대신 자연성을 긍정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사회·인간관계의 질서·차례에 화합하고, 나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sup>6)</sup>을 인문이라고 밝혔다. 施炎平 역시 “공자 이전 철학자들의 종교 및 신학에 대한 반성과 주공의 敬德保民 개념은 종교개혁운동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학자들의 인문의식을 각성시켜 결국 『周易』의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sup>7)</sup>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sup>8)</sup>고 하였다. 비록 『周易』 인문 연구는 아니지만 종교성 극복을 통해 인간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인문을 이해한 학자로는 唐君毅가 있다. 그는 인문을 非人文, 超人文, 次人文, 反人文, 人文<sup>9)</sup>

4) 徐復觀, 『中國人文精神之闡揚—徐復觀新儒學論著輯要』,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6, p.135.

5) 張立文, 『“帛書易傳”的人文精神』, 『國際儒學研究』第二輯, 1996, p.194.

6) 같은 글, p.191.

7) 『周易』, 賁卦, 『彖傳』.

8) 施炎平, 『周易』與中華文化的人文精神』, 『孔子研究』06期, 2013, p.5.

9) 唐君毅는 人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非人文은 사람 이외의 자연 혹은 추상적인 도형과 수 관계 등에 대한 사상으로 이는 자연과학, 수학에 포함된다. 超人文은 일반적인 경험과 이해로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 예를 들면 천도, 신령, 신선, 상제, 천사 등에 대한 사상이다. 次人文은 인성, 인륜, 인도, 인격, 문화, 문화역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존중하지는 않는 상태 혹은 그 일부분의 존재와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상이다. 反人文은 인성, 인륜, 인도, 인격, 문화, 문화역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소홀할 뿐만 아니라 말살하고 곡해하는 것이다. 人文은 인성, 인륜, 인도, 인격, 문화, 문화역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존중하고 소홀하거나 말살하거나 곡해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람 이외 혹은 사람 이하의 자연물 등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 사상이

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인성, 인륜, 인도, 인격, 문화, 문화역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존중하고 소홀하거나 말살하거나 곡해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람 이외 혹은 사람 이하의 자연물 등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 사상”을 인문사상이라고 밝히면서 최대한 종교성을 배제하고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의 내용임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종교성 극복을 통한 인문이해는 이를 가능케 하는 인간 즉 神·천지·인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성인정신이 수반된다.

성인정신을 통한 인문이해는 정병석, 김연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정병석은 인문을 人之道 즉 人道로 이해하고 그 초점을 神道에 대한 인도로 집중해 사용함으로써 『周易』의 인문주의적 해석<sup>10)</sup>을 시도했다. 나아가 『周易』에서 등장하는 성인은 “자연계 및 사회와 인류의 발전법칙을 완전히 파악하여 천하를 변화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천하를 화평하게 하고 아울러 천지의 도를 완전히 파악하여 그것을 백성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천도의 구현자와 문화적 인격의 상징부호”<sup>11)</sup>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성인이야말로 이상적인 인문적 상징임을 밝혔다. 또한 김연재는 천체의 운행질서와 인문의 상관성에 집중하여 “천도의 규준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 특히 성인은 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지속적인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비로소 세상의 교화를 실천하고 세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日月星辰의 변화가 천문이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에 적용되는 것이 인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문이 시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인문은 세상의 교화를 수행하는 것이다.”<sup>12)</sup>라고 정리하면서 성인의 인문은 인간 삶의 본질로서의 천도를 추구하는 것임을 밝혔다.

다.”(唐君毅, 『中國人精神之發展』,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p.2.)

10) 정병석, 『周易과 人文主義의 解釋의 路-卜筮에 대한 先秦 儒家의 解釋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33집, 새한철학회, 2003, 389면.

11) 정병석, 『주역과 성인, 문화상징으로 읽다』, 서울: 예문서원, 2018, 287면.

12) 김연재, 『天道의 패러다임에서 본 周易의 聖人精神과 그 人文主義의 세계』, 『중국학보』 제71집, 한국중국학회, 2015, 456면.

예악·예술적 인문이해는 황해빈, 백은기, 리하르트 빌헬름의 연구가 있다. 황해빈은 “일월성신의 천문현상을 파악하여 인사에 합리적으로 안배함으로써 인류의 질서를 바로잡고 예악교화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윤리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을 인문이라고 밝히고 이 인문을 통해 예악이 흥기됨으로써 세상이 교화된다.”<sup>13)</sup>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백은기는 인문패라고 할 수 있는 『周易』 賁卦를 중심으로 예악문화이론을 밝혔다. 그는 “『周易』의 비괘는 꾸밈으로부터 禮로, 다시 문화로 확장되어 가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도덕성을 근거로 드러남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는 인간의 세대로 이어지는 결혼과 장례 문화 같은 유형무형의 것이며, 조화와 중용을 중시하며, 인간 문제해결의 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sup>14)</sup>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를 존중하며 『周易』을 철리적으로 접근했던 리하르트 빌헬름은 『周易』의 비괘를 예술정신의 단계로 설명하며 결국 “완벽한 우아함(賁)은 물질의 외형적인 장식에서가 아니라 그 형태에 가장 단순한 적합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sup>15)</sup>고 밝혔다. 또한 “만물이 제자리에 있게끔 형상이 질서를 갖도록 하는 文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은 외부에서 삽입된 외적 사유가 아닌 삶의 원리, 활력”<sup>16)</sup>이라고 하면서 외형적 장식이나 사유가 아닌 삶의 원리 그 자체의 적합성을 통해 인간의 우아함 즉 인문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였다.

고대에 人과 文 두 글자는 『周易』 賁卦 「象傳」에서 가장 먼저 함께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동양의 인문 연구는 서양 인문주의의 틀이 아닌 『周易』의 검토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周易』 賁卦를 통해 예악적 인문 이해가 진행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13) 황해빈, 「天文與人文之相應性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1~123면.

14) 백은기, 「『주역』에 나타난 문화에 관하여 - 「비괘(賁卦)」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4집, 동양철학연구회, 2013, 25면.

15) Wilhelm, Richard, Baynes, Cary F,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93.

16) Wilhelm, Richard, 『주역강의』, 진영준 옮김, 서울: 소나무, 1996, 89면.

『周易』은 점서로 저작되었다. 신비롭고 우연적인 점의 기록이 천지만물의 운행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관찰의 결과와 더해짐으로써 『易經』이 만들어졌지만 점과 관찰 기록의 누적만으로 인간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주와 인생의 근본문제를 탐구하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궁구하기 위하여<sup>17)</sup> 天地의 道를 미루어 人事를 밝히는 『易傳』이 저작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종교성을 극복하고 神·천지·인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성인을 통해 인문정신이 성립되는 구조를 다루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는 『周易』 인문정신의 파악에 있어 賁卦의 ‘人文’ 분석에 집중되는 경향을 알 수 있는데, 필자는 『周易』의 인문정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문이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周易』 賁卦 『彖傳』의 내용 외에도 『周易』 전체에서 산발적이지만 각기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文’의 의미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의 함의를 고찰한다면 『周易』의 인문정신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종래의 종교성 자체의 부정을 통한 인문정신 성립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신비롭고 의지적인 受命적 자연종교 단계로부터 신성하고 생명 기원적인 知命적 인문종교 단계로 나아가게 된 인간종교의 연속선 위에서 천지의 도와 문명적 덕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중심으로 성립된 『周易』의 인문정신을 알아보고자 한다.

### 3. 『周易』에서 文의 의미

‘文’은 『易經』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가 『易傳』에 이르러 비교적 여러 차례 등장한다. 『尙書』나 『詩經』에서도 보이는 文이 『易經』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周易』이 점서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文은 文王의 文 외에 『說文解字』에서는 “획을 교차한 것이다. 교차된

17) 熊十力, 『熊十力論著集之二: 體用論』, 北京: 中華書局, 1994, p.314.

무늬를 상형하였다.”<sup>18)</sup>라고 하여 서로 교차해 드러나는 무늬로 설명하고 있고, 『禮記』에서는 “문신을 하였다”<sup>19)</sup>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文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인위적으로 나타낸 무늬 혹은 그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龜卜, 蓍草, 數字, 觀象 등의 방식으로 얻은 무늬 즉 ‘兆文’, ‘卦爻象의 文’, ‘數字卦象의 文’, ‘天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易經』은 그 자체가 文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文이라는 단어를 굳이 言說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易經』과 『易傳』 성서시기 당시 종교관의 차이 역시 文의 등장 유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표 1〉 『易經』과 『易傳』시기 종교관

구분 <sup>20)</sup>	『易經』시기 : 자연종교	『易傳』시기 : 인문종교 <sup>21)</sup>
숭배대상	구체적이고 잡다하며 신비적이고 물질적임	추상적이고 통일되며 신성적이고 정신적임
숭배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소통방식	현실을 조정하고 이용하는 존재, 점복(每事必卜)의 방식	생명 起源의 존재, 제사(脫每事必卜, 家家皆巫)의 방식
이론의 짜임새	소박하고 약함	복잡하고 강함
역할과 기능	의심스럽고 머뭇거리는 일을 결정하는 등의 세속적인 일 중심(受命, 聽命적)	몸을 편안히 하고 명을 아는 등의 정신적인 일 중심(知命적)

18) 『說文解字』, 「文」: 錯畫也. 象交文.

19) 『禮記』, 「王制」: 東方曰夷, 被髮文身.

20) 陳明, 「從原始宗教到人文宗教—『易經』到『易傳』的文化轉進述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期, 2018, p.42 참조.

21) 필자가 종래의 종교성 부정을 통한 인문성 긍정의 관점이 아닌 자연종교에서 인문종교의 구조로 『周易』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신성성의 유지’와 ‘인간의 구복정신’에 있다. 종교성을 청산하고 인문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기에는 『周易』의 神聖性은 여전히 존재하며, 陳來의 논의처럼 ‘巫’와 신비성을 벗어나는 동시에 신성성과 神聖感을 소중히 남겨 두어 사람들의 신성성에 대한 수요를 문명(인문), 교양, 예의 가운데 여전히 체현시켰으며



『易經』의 자연종교시기 당시 文(甲骨文 따위)은 특정 인간이 숭배대상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수단 즉 巫계층의 전유물이었기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반 인간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로서의 文은 受命, 聽命의 시기에서 나아가 知命의 시기 즉 家家皆巫<sup>22)</sup>의 소통방식을 갖는 『易傳』의 인문종교시기에 공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易經』의 자연종교시기와 달리 『易傳』의 인문종교시기는 文의 향유계층이 巫에서 일반 인간으로 확대되었기에, 文의 의미 역시 신비로운 兆文, 卦爻象, 數字卦象, 天文에서 인간의 삶과 지혜를 포함하는 의미로 전의되면서 아래와 같은 文의 다양한 용례들이 『易傳』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易傳』에서 ‘文’은 「彖傳」, 「象傳」, 「文言傳」, 「繫辭傳」, 「說卦傳」에서 23차례<sup>23)</sup> 나타나는데, 이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周易』에 보이는 ‘文’

NO.24)	출처	‘文’이 있는 구절
1	䷰ 革卦, 九五, 「象傳」	“大人虎變”, 其文炳也.
2	䷰ 革卦, 上六, 「象傳」	“君子豹變”, 其文蔚也.
3	䷁ 坤卦, 六五, 「象傳」	“黃裳元吉”, 文在中也.

로(陳來, 『古代宗教與倫理: 儒家思想的根源』,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6, p.12.) 『周易』에서 인간의 인문성 긍정이 결코 종교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문과 종교는 함께 발전하여 성숙한 철학적 인문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구복정신 즉 복을 구하여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을 구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이 神, 帝, 天 혹은 자연, 우주만물로 다양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 생명기원의 실체를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인식은 학문이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구복을 신비적인 요소에 의지하는가 인간의 삶과 이해에 기반하는가로 자연종교와 인문종교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종교와 인문은 正反처럼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나가는 인간의 철학정신으로 이해한다.

22) 김성기, 「선진유학의 본질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유교사상연구』 제29집, 한국유교학회, 2007, 38면 참조.

23) 서명인 文言과 인명인 文王의 文을 제외한 합계이다.

4	『說卦傳』	坤爲地, 爲母, 爲布, 爲釜, 爲吝嗇, 爲均, 爲子母牛, 爲大輿, 爲文, 爲衆, 爲柄, 其於地也爲黑.
5	☰ 乾卦, 『文言傳』	“見龍在田”, 天下文明.
6	☶ 同人卦, 『彖傳』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7	☰ 大有卦, 『彖傳』	其德剛健而文明, 應乎天而時行, 是以元亨.
8	☱ 賁卦, 『彖傳』	賁, 亨, 柔來而文剛, 故亨, 分剛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 (剛柔交錯)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9	☱ 明夷卦, 『彖傳』	內文明而外柔順, 以蒙大難, 文王以之.
10	☱ 革卦, 『彖傳』	文明以說, 大亨以正, 革而當, 其悔乃亡.
11	☱ 小畜卦, 『大象傳』	風行天上, “小畜”, 君子以懿文德.
12	『繫辭上傳』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13	『繫辭上傳』	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 遂成天下之文, 極其數, 遂定天下之象.
14	『繫辭下傳』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15	『繫辭下傳』	其稱名也小, 其取類也大, 其旨遠, 其辭文, 其言曲而中, 其事肆而隱.
16	『繫辭下傳』	道有變動, 故曰爻, 爻有等, 故曰物, 物相雜, 故曰文, 文不當, 故吉凶生焉.

『周易』에 보이는 文을 살펴보면 유사한 용례에 따라 ①『象傳』과 『說卦傳』, ②『文言傳』과 『彖傳』과 『大象傳』 ③『繫辭傳』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象傳』과 『說卦傳』(표-2, 1~4의 구절)에서 文은 단독으로 쓰이고 있으며 문맥상 文飾과 文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說文解字』와 『禮記』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양하게 드러난 무늬나 색채는 文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文은 단지 외면적으로 포장

24) 나열한 순서는 본 논문의 분석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도록 임의로 배열하였다. 다만 동일한 傳 내에서는 통행본 『周易』의 괘 순서를 따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文德으로부터 드러나는 문식이나 문채임을 알 수 있다. “黃裳元吉, 文在中也”에 대해서 『周易本義』에서는 “文이 가운데에 있어 밖으로 드러난다.”<sup>25)</sup>라고 하였고, 『周易正義』注에서는 “文이 가운데에 있으니 아름다움이 지극하다.”<sup>26)</sup> 疏에서는 “안에 문덕이 있어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것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결국 이는 坤卦 『文言傳』에서의 “아름다움이 가운데에 있어 사지에 빛나며 사업에 나타나니 아름다움이 지극하다.”<sup>28)</sup>라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문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늬야말로 『象傳』에서 말하고 있는 大人의 文이고 君子의 文이며 黃中의 文이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고치는 것은 문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周易』 특히 『說卦傳』에서 文은 땅, 坤에 해당하고 유순한 존재로 여겨진다.<sup>29)</sup> 그래서 비록 힘이 강건하진 않지만 만물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고, 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덕으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다<sup>30)</sup>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덕은 힘이 강하거나 무력적이지 않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순한 방법, 온화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갖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여 화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文의 방법이다. 孔穎達은 『說卦傳』의 文에 대해 “만물의 색이 섞인 것”<sup>31)</sup> 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이는 땅의 다양한 만물이 한데 모여 무늬 즉 문채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만물의 색이 결코 단일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文은 분명 다른 것이 섞여서 아름답게 드

25) 『周易本義』, 『坤卦』: 文在中而見於外也.

26) 『周易正義』, 『坤卦』: 以文在中, 美之至也.

27) 『周易正義』, 『坤卦』: 以內有文德, 通達物理.

28) 『周易』, 坤卦, 『文言傳』: 美在其中而暢於四支, 發於事業, 美之至也.

29) 『周易集解纂疏』, 『坤卦』: 王注: “坤爲文”, 說卦文. 楚語曰“地事文”, 韋昭注云“地質柔順, 故文.”

30) 『周易正義』, 『坤卦』: 以體无剛健, 是非用威武也. 以內有文德, 通達物理.

31) 『周易正義』, 『說卦傳』: 爲文, 取其萬物之色雜也.

러난 무늬를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섞여서 아름다운 문채를 이룰 수 있음의 전제는 다른 것들 가운데 동일한 요소인 온화하고 아름다운 문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제외하고 무늬만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文의 의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繫辭下傳』에서 밝히고 있는 文不當의 사태를 초래하여 길흉의 갈림길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周易』에서 문식 또는 문채의 의미를 갖는 文의 경우 온화하고 아름다운 문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文言傳』, 『象傳』, 『大象傳』(표-2, 5~11의 구절)에서 文의 용례를 확인하면 모두 ‘文+x’의 형태로 등장하여 文明과 文德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文은 문채·문식의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문자·문장·문사, 예악, 무력과 상대되는 문치·문사·문덕 등<sup>32)</sup>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의미들은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 야만적 폭력성이나 무력과 대비되는 문덕의 요소 즉 인간의 아름다운 덕과 참된 지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문명은 종종 利器의 발전으로 설명되지만 『周易』에서는 덕의 강건함, 인간 내면의 굳건함으로 나타나 인간의 강건한 덕성 혹은 정신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문명에서 明의 의미를 확인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明은 밝음, 불빛의 의미를 갖는데 『周易』에서 리괘(☲)를 포함하는 괘의 경우 주로 등장한다. 그래서 『說卦傳』에서도 “리는 밝음이다”<sup>33)</sup>라고 하였다.

리괘의 상징은 불이고 불은 밝게 빛나는 자연물이다. 밝게 빛나는 것 가운데 해와 달은 예로부터 쌍벽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繫辭傳』에서는 “밝게 빛나 걸려있는 것은 해와 달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34)</sup> 그래서 불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상징은 『繫辭傳』의 내용과 같이 해와 달이나 빛으로 나

32) 『漢語大詞典』, 『文』

33) 『周易』, 『說卦傳』: 離也者, 明也.

34) 高懷民, 『中國古代易學史』, 숭실대동양철학연구회 옮김,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0, 89면.

타나며, 해와 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빛은 이성과 법칙 즉 진리 인식의 주요 원천으로<sup>35)</sup>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彖傳』과 『文言傳』, 『大象傳』에서 등장하는 文의 의미는 인간의 삶에 있어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강건한 덕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나아가 문명은 이처럼 평화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방법으로 밝혀지는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乾卦 『文言傳』에서는 九二 효의 “見龍在田”에 대한 풀이로 “天下文明”이 등장하는데 이는 “德博而化”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역시 덕으로 천하가 밝아진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繫辭傳』(표-2, 12~16의 구절)에서는 ‘x+文’의 형태로 등장하여 天地, 鳥獸의 무늬와 인간의 생각과 법칙을 드러내는 辭文이나 문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天地人 三才의 道라는 원리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에서는 천문과 지리가 對句로 쓰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상은 文이라고 하고 땅에서 이루어진 형태는 地理라고 했으니 의미상으로 보면 文과 理의 의미가 서로 호환된다고 하겠다.<sup>36)</sup>

『繫辭傳』에서는 비록 天文, 天下之文, 鳥獸之文과 같이 人之文 혹은 人文의 용례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논리상 天地, 鳥獸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繫辭傳』에서의 文이란 천하 만물의 모습과 그 법칙 즉 道理에 대해 인간의 논리적 인식 안에서 정리되어 산출된 생각의 산물이자 이를 포괄하는 인간의 철학적 문장이며 나아가 인간의 도리와 文이 서로 호환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周易』에서 文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象傳』과 『說卦傳』에서는 은화하고

35) 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8집, 한국현상학회, 2008, 150면 참조.

36) 吳寧, 『『周易』之“文”——以『賁』卦爲中心』, 『中國哲學史』 02期, 2019, p.32.

아름다운 문덕으로부터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늬와 색으로서의 문식과 문채로, 『彖傳』과 『文言傳』과 『大象傳』에서는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강건한 문명적 덕성으로, 『繫辭傳』에서는 천하 만물의 모습과 그 도리 혹은 이에 대해 인간의 논리적 인식 안에서 정리되어 산출된 인간의 철학적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周易』의 인문정신

『周易』에서 文은 온화하고 아름다운 문덕으로부터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늬,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문명적 덕성, 천하 만물의 도리와 인간의 철학적 문장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앞 장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文 즉 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周易』에서 인문은 다음과 같이 賁卦 『彖傳』에서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강과 유가 서로 교착하는 것은 천문이고, 문명에 머무름은 인문이니, 천문을 관찰하여 사계절의 변화를 살피며,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룬다.<sup>37)</sup>

비괘의 상(☶)은 艮上離下이다. 卦變으로 보면 하체는 본래 乾卦인데 유가 와서 離卦가 되었고, 상체는 본래 坤卦인데 강이 가서 艮卦가 된 것이므로 강과 유의 교착으로 천문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卦德으로 보면 艮의 공능은 머무르는 것이고, 離의 공능은 문명함이므로 뒤 따라오는 ‘문명에 머무름’의 내용이 전혀 갑작스럽지 않다. 이렇듯 비괘에서는 천문의 설명과 함께 ‘문명에 머무름’이 바로 인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왕필은 “物을 머무르게 함을 무력이 아니라 문명으로 하는 것

37) 『周易』, 賁卦, 『彖傳』: 彖曰: 賁, 亨, 柔來而文剛, 故亨, 分剛上而文柔, 故小利有攸往, (剛柔交錯)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이 인문이다.”<sup>38)</sup>라고 말했고, 공영달은 “문명은 리괘를 말하고 머무름은 간괘를 말한다. 이 문명한 도를 사용하여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 문덕의 가르침이다.”<sup>39)</sup>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간 세상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문명이다. 또한 이 문명은 해와 달이 서로 갈마들어 하늘의 무늬를 이루고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듯 인간 세상의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반면 인간의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사상과 행위야말로 자연에 역행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인간이 이 문명한 도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 근거는 바로 문덕이다. 사계절의 변화가 해와 달에 달려있듯이 천하의 이루어짐은 인문 즉 ‘인간의 문덕’에 달려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周易』에서 德의 논의는 道에서부터 시작된다. ‘一陰一陽하는 원리<sup>40)</sup>로 나타나는 도는 항성의 주기적이고 순환적인 경로와 관련되고 日月星辰의 천체운동과 그 질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담고 있는 원리<sup>41)</sup>로써 만물의 보편적 질서이자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보편 원리가 하늘, 땅, 인간에 적용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周易』에서는 天道, 地道, 人道로 표현하고 있다. 道의 적용으로 생성된 개체는 보편원리 즉 道를 바탕으로 하는 원동력을 통해 존재가 유지되고 生生하게 되는데 이 원동력이 바로 德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 자체로서의 德은 생명의 무한한 잠재력을 더욱 제고하고 확충함으로써 삶에 영화로운 활력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sup>42)</sup> 결코 인간의 생과 분리될 수 없는 이 德은 文과 함께 종종 사용되었는데, 일찍이 그 용례를 『尙書』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 『周易正義』, 『賁卦』: 止物不以威武, 而以文明, 人文也.

39) 『周易正義』, 『賁卦』: 文明, 離也, 以止, 艮也. 用此文明之道, 裁止於人, 是人之文德之教.

40)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41) 김연재, 앞의 글, 450면.

42) 金春峰, 『人文典範의原創』: 『周易』導讀與簡釋, 北京: 東方出版社, 2010, p.119.

말하건대, 옛 道를 따라 상고하신 분은 帝舜이시니, 거듭 빛나 帝堯에 합하셨다. 지혜로움과 文明함과 溫恭함이 채워져서 고요한 德이 위에 알려지니, 이내 직위를 가지고 임명하셨다.<sup>43)</sup>

禹가 온당한 말에 절을 하고 “옳습니다!”라고 하고는 군대를 돌려 병사를 정돈하여 돌아왔다. 帝舜이 이에 文德을 크게 베푸시어 방패와 깃을 들고 두 섬돌 사이에서 춤을 추니, 70일 만에 有苗가 (스스로 복종하여) 이르렀다.<sup>44)</sup>

위 내용을 통해 순임금이 지니고 있던 덕은 지혜, 문명, 온공함을 포괄하며, 이 덕을 특별히 문덕이라고 지칭할 경우에는 무력 즉 군사를 사용하지 않고 예악을 통해 백성을 통솔함을 나타낸다. 그 결과 문덕을 베풀어 타 백성들이 스스로 복종하여 이르게 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周易』 明夷卦 『彖傳』에서는 위 내용과 유사하게 ‘內文明而外柔順’을 실천한 사람으로 文王(九州 전체에서 문왕에게 귀의한 주가 여섯이고 오직 세 개 주가 귀의하지 않고 紂王에 속해 있었으나 문왕은 귀의하지 않은 주왕과 그의 백성들 역시 섬겼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中庸』에서 “『詩經』에……아! 뚜렷하지 않은가. 문왕의 덕이 순일함이어’라고 했으니 이는 문왕이 文이 된 이유를 말한 것이요, 순일함 역시 그치지 않음을 말하였다.”<sup>45)</sup> 라고 하여 문왕도 순임금처럼 문덕으로 정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후 周公 또한 문왕을 이어 시호를 文公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력이 아닌 문덕과 예악으로 백성을 다스린 경우 文의 호칭을 부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어진 文의 연속성은 다음과 같이 공자에까지 이르게 된다.

43) 『尚書』, 『舜典』: 曰若稽古帝舜, 曰重華協於帝. 浚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

44) 『尚書』, 『大禹謨』: 禹拜昌言曰: 兪! 班師振旅. 帝乃誕敷文德, 舞幹羽於兩階, 七旬有苗格.

45) 『中庸』, 『第二十六章』: 詩云: …… 於乎不顯, 文王之德之純, 蓋曰文王之所以爲文也, 純亦不已.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文王이 이미 별세했으나, 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文을 없애려 했다면 후에 죽는 사람(내 자신)이 이 文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文을 없애려 하지 않으니, 匡 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sup>46)</sup>

여기에서의 文이란 과거에는 문왕의 몸에 있었고 현재는 나의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크로에버(kroeber), 크릭호온(kluckhorn), 스쩌판스키(szczepenski), 유 로트만(Yu lotman) 등의 논의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문화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것”<sup>47)</sup>이라고 한 비탈리 에이 루빈(Vitaly A. Rubin)의 이론이 비교적 부합한다고 보인다.<sup>48)</sup> 즉 아름답고 영구하게 生生하는 문덕이 과거에는 순임금, 문왕, 주공의 몸에 있었고 현재는 공자의 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덕은 면면히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우리의 몸속에 영구히 생생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문을 관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공자에게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공자는 더이상 자연종교 당시처럼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막연한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생명 기원의 신성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몸을 편안히 하고 덕을 살피며 명을 알아서 미래에 대해 마냥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인문종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帛書 『易傳』 『要』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덕행을 잃은 사람은 신령을 쫓고, 앓을 멀리한 사람은 복서를 찾는다.<sup>49)</sup>

46) 『論語』, 『子罕』: 子畏於匡曰: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47) Rubin, Vitaly A,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묵자, 상앙, 장자의 사상 연구』, 임철규 옮김, 성남: 율하, 2007, 34면.

48) 백은기, 앞의 글, 8면.

49) 馬王堆帛書 『易傳』, 『要』: 德行亡者, 神靈之趨, 知謀遠者, 卜筮之繁.

나는 『周易』의 삶을 즐긴다.<sup>50)</sup>

나는 역의 점치는 면은 뒤로 하고, 덕과 의를 살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 부분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문덕 즉 인문이 순임금, 문왕, 공자 나아가 현재 우리의 몸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영구히 그치지 않는 生生의 덕이고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문명적 덕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 변화는 단지 인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비괘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여러 정사를 밝히되 함부로 옥사를 과감히 처리하지 않는다.<sup>51)</sup>

결론적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함부로 무력이나 형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문명한 道, 즉 인간 문덕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인문정신으로 살아간다면 賁卦 「象傳」과 같이 천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周易』 인문정신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周易』은 기본적으로 해석학<sup>52)</sup>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易

50) 馬王堆帛書『易傳』, 「要」: 予樂示知之.

51) 『周易』, 賁卦, 「象傳」: 象曰: 山下有火, 賁. 君子以明庶政, 无敢折獄.

52) 해석학의 어원에 대해서 김영환은 “언어가 유래한 헤르메스(Hermes)는 언어와 문자의 근원으로 인정되는 신의 使者다. 그것은 이미 희랍어에서 텔포이 신전의 신탁이나 신적 소명의 해석과 이해를 의미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해석학이란 단어는 그 어원에 있어서 종교적인 영역, 즉 신적 메시지의 이해와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經』 즉 점을 쳐서 얻은 점사 또는 신탁의 해석과 이해를 위해 『易傳』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周易』은 그 자체로 하늘에 대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성과 인문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성을 배제한 인문이란 분명 『周易』의 인문정신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고는 종교의 연속선상에서 천지의 도와 인간 문명적 덕성의 분명한 인식을 통해 성립된 『周易』의 인문정신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周易』의 인문정신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문이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周易』 賁卦 「象傳」 외에도 『周易』 전체에서 산발적이지만 각기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는 文의 의미를 통해 인문의 함의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文’은 『易經』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가 『易傳』에 이르러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이유를 유추하자면 첫째, 龜卜, 蓍草, 數字, 觀象 등의 방식으로 얻은 무늬 즉 ‘兆文’, ‘卦爻象의 文’, ‘數字卦象의 文’, ‘天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易經』은 그 자체가 文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文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연하여 言說로 나타낼 필요가 없었다. 둘째, 『易經』의 자연종교시기와 달리 『易傳』의 인문종교시기는 文의 향유계층이 巫에서 일반 인간으로까지 확대되어 文의 의미 역시 신비로운 兆文, 卦爻象, 數字卦象, 天文로부터 인간의 삶과 지혜를 포함하는 의미로 전의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文에 대한 이해와 묘사 역시 언설로도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易傳』에서 ‘文’은 「象傳」과 「說卦傳」에서는 은화하고 아름다운 문덕으로부터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무늬와 색으로서의 문식과 문채로, 「象傳」과 「文言傳」과 「大象傳」에서는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강건한 문명적 덕성으로, 「繫辭傳」에서는 천하 만물의 모습과 그 도리 혹은 이에 대해 인간의 논리적 인식 안에서 정리되어 산출된 인간의 철

있다.(김영한, 『설리아에르마허에서 리퍼트까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1, 15면)

학적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周易』의 인문이란 문명한 도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근거로서의 인간 문덕을 말하며, 이 인문은 순임금, 문왕, 공자 나아가 현재 우리의 몸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영구히 그치지 않는 生生의 덕이고 야만적 폭력성과 상반되는 문명적 덕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 같은 『周易』의 인문정신에는 공자의 논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가지런히하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은 면할 수는 있으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하기를 예로써 하면, 부끄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될 것이다.”<sup>53)</sup>라고 하며, 우리로 하여금 문명적 덕성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움’과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사상과 행위로 자연에 역행하는 ‘부자연스러움’에 대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분명한 이성적 감정을 중심에 두었다. 이는 인문정신의 실천적 문제도 모두 포괄하는 철학적 완전성을 갖는 논리이자 『周易』 인문정신에 녹아있는 공자사상의 공헌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周易』  
 『尙書』  
 『禮記』  
 『中庸』  
 『論語』  
 『周易本義』

53) 『論語』,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周易正義』

『說文解字』

『漢語大詞典』

『周易集解纂疏』

馬王堆帛書『易傳』

高懷民, 『中國古代易學史』, 송실대학교출판부, 송실대동양철학연구회 옮김, 1990.

김영한, 『설라이에르마허에서 리피르까지』, 송실대학교 출판부, 2011.

정병석, 『주역과 성인, 문화상징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8.

Rubin, Vitaly A,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목자, 상양, 장자의 사상 연구』, 임철규 옮김, 율하, 2007.

Wilhelm, Richard, 『주역강의』, 진영준 옮김, 소나무, 1996.

金春峰, 『人文典範의原創: 『周易』導讀與簡釋』, 東方出版社, 2010.

唐君毅, 『中國人文精神之發展』,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徐復觀, 『中國人文精神之闡揚—徐復觀新儒學論著輯要』,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6.

熊十力, 『熊十力論著集之二: 體用論』, 中華書局, 1994.

陳來, 『古代宗教與倫理: 儒家思想的根源』,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6.

Wilhelm, Richard, Baynes, Cary F,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김성기, 『선진유학의 본질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유교사상연구』 제29집, 한국유교학회, 2007, 5~63면.

김연재, 『天道の 패러다임에서 본 周易의 聖人精神과 그 人文主義의 세계』, 『중국학보』 제71집, 한국중국학회, 2015, 441~466면.

백은기, 『『주역』에 나타난 문화에 관하여 - 『비괘(賁卦)』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74집, 동양철학연구회, 2013, 5~27면.

백종현, 『인문학의 이념과 한국인문학의 과제』, 『인문논총』 제72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63~193면.

장영란, 『불의 상징과 형이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8집, 한국현상학회, 2008.

정병석, 『周易과 人文主義의 解釋의 筌—卜筮에 대한 先秦 儒家의 解釋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33집, 새한철학회, 2003, 387~405면.

황해빈, 『天文與人文之相應性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施炎平, 「『周易』與中華文化的人文精神」, 『孔子研究』 6期, 2013, 4~13面.

施炎平, 「『周易』和儒家人文哲學: 從差異比較的視角作重新詮釋的嘗試」, 『周易研究』 05期, 2004, 57~64面.

吳寧, 「『周易』之“文”——以『賁』卦爲中心」, 『中國哲學史』 2期, 2019, 31~37面.

張立文, 「『帛書易傳』的人文精神」, 『國際儒學研究』 第二輯, 1996, 196~214面.

陳明, 「從原始宗教到人文宗教——『易經』到『易傳』的文化轉進述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期, 2018, 47~54面.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Wen(文)  
and humanities spirit in Zhouyi(周易)

Kim, Ah-r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Wen(文) and Renwen(人文) throughout Zhouyi and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true meaning of humanities spirit.

Renwen(人文) is the first to be found in *Zhouyi Tuanzhuan*(彖傳). Even if the spectrum of controversial the period of formation of *Tuanzhuan* has expanded to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Former Han, the term Renwen(人文) first appeared in *Zhouyi* along with Tianwen(天文). But in fact, the meaning of Renwen(人文) derived from *Zhouyi* contains its own unique philosophy, which is not only seen as the studia humanitatis of literary-history-philosophy(文史哲) unity. Moreover, as the cultures and histories of the East and the West differ, the meaning of the two terms cannot be completely identical.

As you know, *Zhouyi* is based on human understanding of Tian(天), so it has both religious and humanistic elements. Therefore, the Renwen(人文) that excludes religion is certainly far from the humanities spirit of *Zhouyi*. So, this paper focused on the humanities spirit of *Zhouyi*,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lear perception of the Natural Tao and human civilization virtue in the continuous line of religion.

In addition,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humanities spirit of *Zhouyi* through the analysis of prior research, we decided that it was first necessary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Renwen(人文) through the meaning of Wen(文), which is scattered but significant throughout *Zhouyi*.

Key Words: Zhouyi, Wen, Virtue, Humanities, Civilization

---

\* SungKyunKwan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김아람

소속: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전자우편: w3w3w7@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8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6일